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모색한다

-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을 자유롭게 발굴하는 토론회 개최
-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첫걸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7월 14일(화) 14:00,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와 경제·경영·복지·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AI 시대라는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들을 발굴하고, 공론의 장에 올리는 첫 번째 정부 주최 토론회이다.

이날 토론은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AI강국위원회 간사), 정홍준 교수(서울과기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건국대 경영학과)의 발제 이후, 노사와 관련 전문가 등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계약의 논의에서 정부는 정답을 손에 쥔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창발적 대안을 내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며,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 15일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산업부 주관)를 릴레이로 개최*하는 등 정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7.15.(수) 09:00~10:30,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11층
좌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 노동계·경영계·정부 추천 전문가, 청년·플랫폼 노동 관련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AI 시대 새로운 사회혁신을 위한 녹색 논의체를 신속히 꾸려, 8월부터 AI 산업전환 시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국민과의 소통을 거쳐 연내에 질문 중심의 녹서를 발간하고, 노사정과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1. 토론회 개요

2. 장관 개회사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부용 (044-202-7740)
		담당자	서기관	김대원 (044-202-7742)



붙임 1

토론회 개요

□ **제목:**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 **일시:** '26. 7. 14.(화) 14:00~16:30

□ **장소:** 피스애파크(용산) 로얄홀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내 피스애파크 3F

□ 구성

○ (좌장) 강성진 교수(고려대)

○ (발제자 3명) 차지호 의원(민주당), 정홍준(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자) [노사 4명]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 민주노총 이겨레 청년
특위 위원장, 한국경총 황용연 이사,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본부장

[전문가 5명]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승일(정치경제학 박사), 홍기빈(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초빙부연구위원),
류성민(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조용만(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4:00~14: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14:05~14:10	5'	• 노동부 장관 개회사
14:10~14:25	15'	• 주요 내·외빈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참석자 소개
14:25~15:00	35'	• 발제(3명, 각 12분 이내)
15:00~16:10	70'	• 지정 토론(9명, 각 8분 이내)
16:10~16:30	20'	• 현장 발언 및 마무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오늘 노동제와 경영제,
그리고 학제의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님,
토론회의 문을 여는 발제를 해주실
차지호 의원님, 정홍준 교수님, 윤동열 교수님,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주시길
노사단체 그리고 전문가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AI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대응해
우리 대한민국의 활력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을 여는 마중물로 기획했습니다.

AI 대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산업생태계, 우리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정의까지 뿌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사라지는 일자리'와 '움져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는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게 하고,
또 어떤 일자리는 새롭게 만들어 냅니다.

문제는 사라지는 자리와 생겨나는 자리 사이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는가입니다.

특히 청년 등 사회 초년생이 내딛는
그 첫 계단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노동'의 정의도 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으로, 프리랜서로,
때로는 알고리즘에 연계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이들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과연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그리고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입니다.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전통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세제,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그 체제 내에 있지 않은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의 출현,
한국의 고착화된 기업단위 교섭체제와
성과배분체제의 불일치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분배가 다시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져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계약의 요체입니다.

이는 특정 세대나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하는 노동자와 앞으로 일하게 될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ILO의 대원칙처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가지 않겠습니다.

독일이 긴 사회적 논의 끝에
'노동 4.0'이라는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정답을 손에 쥐고 정해진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자유롭게 만나
창발적 대안을 내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제와 경영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분들의 의견도
담아내겠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장하고,
사회 대개혁의 문을 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온 모든 질문들을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고 소중히 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국민과의 소통을 거쳐
AI 대전환 시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공개 질의서,
이른바 '녹서'로 정성껏 엮어
여러분 앞에 내놓겠습니다.

이를 다시 폭넓은 공론화의 마당에 올리고
노동제와 경영제, 학제, 청년, 미조직 노동자,
국민이 함께 만든 방향을 담아
미래의 청사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 또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상생의 답을 찾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반드시 안착시키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마련한 이 자리가
AI 시대 미래 혁신, 노동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국제적 표준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 자리가 한 번의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사회제약을 위한 긴 여정의 첫 이정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질문이 내일의 정책이 되도록,
길고도 값진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